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기회의 땅 새만금, 재생에너지 메카로

육상태양광 준공식 열려
연간 131GWh 전력 생산
전북경제 체질 개선 계기



22일 군산시 새만금북로에서 열린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준공식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소순열 새만금 민간공동위원장,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등 참석자들이 발전개시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새만금을 세계최고의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만들고, 그린뉴딜 중심지로 주도할 육상태양광(1구역) 준공식이 22일 열렸다. 이날 준공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강병재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안호영 국회의원, 그리고 유관기관 및 사업 관계자 등 총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현장에서 진행됐다.

육상태양광(1구역)은 총사업비 1,575억 원을 투자해 1,155km² 면적에 설비용량 99MW의 발전시설로서, 연간 131GWh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이 전력량은 약 2만7,000여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또한, 지역기업 40% 참여 및 지역 기자재 50% 이상 사용과, 지역 주민이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지역상생방안 실천으로, 지역에 활력을 주는 동시에 새만금 내부 개발을 활성화는 계기가 됐다. 새만금지역은 육상태양광 발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생산될 예정이다. 특히, 새만금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활용해 관련 제조 산업과

연구 인프라 등을 함께 구축하는 '새만금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가 지정됨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또한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실행과 국내 최초 RE100 산단 조성 등 새만금이 재생에너지 메카로 성장과 더불어, 전북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기회의 땅' 새만금은 동북아 경제 중심지, 그린 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 등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문명을 열 것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각국이 탄소중립 실현에 발 벗고 나선 가운데, 우리 전북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문명을 향해, 새만금을 무대로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에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송 지사는 "전북도는 새만금을 속도감 있게 개발해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 조성을 목표로, 민간투자 유치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조선 경제사 연구자료 가치 높아

진안 금당사 소장 '강진 무위사감역교지'
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고시

진안군 미령면 동촌리에 위치한 금당사 소장 문화재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가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22일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康津 無爲寺 減役交旨)'라는 이름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고시 했다. 이번 보물 지정은 진안군 내에서 성석린고신왕지(1983년 지정), 금당사 괘불탱(1997년 지정), 진안 수선루(2019년 지정)에 이은 네 번째다.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는 1457년(세조 3) 음력 8월 10일 국왕이 강진 무위사의 잡역을 면제하도록 명령을 내린 국가의 공식적인 교지 문서이다. 세조 연간 불교사책의 일환으로, 1457년 불교 관련 조목을 제정해 예조(禮曹)에 하교했고, 같은 해 7~8월 동안 주요 사찰에 잡역을 면제 또는 축소하는 내용의 교지를 발급했다. 당시 발급된 감역교지로 원문서가 전해지는 것은 무위사 교지를

포함해 '예천 용문사 감역교지', '능성 쌍봉사 감역교지', '전안진 무위사 감역교지'가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됐다.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는 절첩본 형태로 개장했으며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세조의 어언(御言: 임금의 수결을 새긴 도장)과 '시명지모(施命之寶: 조선시대에 책봉이나 벼슬을 내릴 때 사용한 도장)'의 어보가 명확하게 남아있는 조선 초기 고문서로, 국가문서 양식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또한 조선 세조 때 사찰 정책과 인식을 보여주며, 더 나아가 조선 시대 경제사 및 불교사 등 관련 연구 자료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진안군수는 "앞으로도 비지정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우수한 문화재는 국가·도문화재로 지정·승격을 추진하는 한편, 지정된 문화재의 활용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도, 상·하반기 행안부 뉴딜 연달아 선정

케나프 기반 친환경 바이오 개발 등 특교세 총 46억원 확보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실현과 '전북형 뉴딜사업'에 원동력이 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전북도가 올 한해 쉽지 않았던 달이었다. 그 결과, 도는 행정안전부의 뉴딜사업에 상·하반기 연달아 선정돼 총 46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도는 올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공모 경진대회에서 케나프 기반 친환경 바이오 개발 및 산업화 사업이 '신제품 북분자 디지털 뉴딜' 분야에 선정돼 총 46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이 사업의 핵심은 가장 큰 환경문제 중 하나인 플라스틱을 케나프로 대체해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개발

하는 것이다. 토양에서 생분해가 가능한 케나프 원료 기반 플라스틱은 새만금 농업용지에서 재배하고, 농업용 멀칭 비닐로 먼저 개발한 후 축적된 기술을 활용, 일반 플라스틱 사용자까지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2차 심사와 균형발전 위원회의 컨설팅을 거쳐 '신제품 북분자 디지털 뉴딜' 분야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 뉴딜사업으로, 주민들이 뉴딜사업의 실효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변화와 고령화로 북분자 재배면적 및 생산량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공정 목표장, ▲빅데이터 수집·분석, ▲첨단 자율제어 플랫폼 구축, ▲육묘·재배 관리 교육체계 구축, ▲자율주행 수확 도우미 로봇 개발 구축 내용으로 이상적인 지역 균형 뉴딜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박경숙 도 농업기술원장은 "이번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케나프와 북분자가 뉴딜 날개를 달고, 전북형 뉴딜이 농업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과 성공적으로 융합해 농업경제에 큰 파도를 만들어 많은 도민이 탑승 가능한 성공의 배를 띄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도, 내년 상반기 승진 내정자 발표

'국장급' 나해수 지역정책과장 등 포함 총 89명

전북도가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 승진 내정자를 발표했다. 승진 인원은 국장급 1명, 과장급 8명, 팀장급 21명, 6급 이하 59명 등 총 89명이다. 국장급 승진 내정자인 나해수 지역정책과장(사진)은 1982년 공직에 입문, 주력산업과장, 진안부군수, 지역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과장급 승진 내정자들은 다음과 같다. ▲박동우 안전정책관 안전정책팀장 ▲신형준 관광총괄과 토탈관광팀장 ▲윤세영 정책기획과 기획팀장 ▲이지형 총무과 비서관 ▲홍인기 일자리경제정책관 경제정책팀장 ▲이희선 추진과 추진경영팀장 ▲윤근배 지역정책과 도시계획팀장 ▲최소라농업기술원 농업환경과.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